

사람이 사람이면 다 사람이라, 사람이 사람다워야 사람이지. 이 사람다운 사람이 들어서 남·북 문제, 동·서 문제를 가르쳐 보아야 할 것이요, 이 사람다운 사람이 출가(出家)하여 견도(見道), 수도(修道), 무학도(無學道), 오도(悟道)의 경지에 이르러 참회(懺悔) 발원(發願) 교화(教化) 하여야 하지 않겠소?!

이 양심(良心)의 소리는 소리를 조용히 들을 수 있는 사람다운 사람, 개구리가 울렁이적 생각을 하는, 의리를 잊어버리지 않고 그 의리를 지키는 사람다운 사람, 본심(本心) 가까운 마음으로 알음알이인 지적미혹(知的迷惑)을 벗어 버리고 정(情)에 사로 잡히지 않고 뜻(意)에 얽매이지 않으며 물든 마음(染心)에 흐릿하지 않는 사람다운 사람, 설사 알음알이의 지적미혹에서 헤매인다 하더라도 정에 사로 잡히고 뜻에 얽매고 물든 마음으로 행동한다 하더라도 불교의 우주관, 불타의 세계관, 불타교사의 인생관, 용성교사의 국가관을 요해하여 스승과 어른을 공경하고 진리의 아버이 이신 불타교사(佛陀祖師)님에게 효행(孝行)하며 씨족(氏族)의 원류(源流)를 확립하여 민족사관을 재정립한 바탕 위에 불타교사원류(佛陀祖師源流)의 흐름을 따라서 불교사관

사람다운 사람을 찾습니다.

이 건백서를 보시고 석가여래부촉법 제68세 용성진종(白龍城) 교사의 연보를 보시고저 원하시는 분은 위에 기록된 절로 신청하여 주시되, 받으실 분의 우편번호, 주소, 전화번호, 스님의 경우에는 법명, 신도의 경우에는 법명과 성명, 일반인의 경우에는 성명을 잘 기록하여 보내주시면, 바로 우편이나 인편으로 공손하게 올려 드리겠습니다.

을 재정립(再定立)하여 불교의 생활화, 불교의 대중화, 불교의 지성화(知性化)인 참선수행 의단독로(參禪修行疑團獨露), 주력수행 업장소멸(呪力修行業障消滅), 간경수행 혜안통무(看經修行慧眼通透), 열불수행 삼매현전(念佛修行三昧現前)의 사람다운 사람, 이 경지에는 이르지 못했다 하더라도 이 근본 수행을 찬탄하는 학자인, 사람다운 사람을 찾아 모시고저 합니다.

용기있는 학자, 사람다운 사람은 저 신라시대의 김 유신 장군님처럼, 저 고려시대의 군여 법사님처럼, 저 조선시대의 서산대사님처럼, 근세의 만해 한 용운 대사님처럼, 유 관순 열사님처럼, 매한 운 봉길의사님처럼, 이 건백서와 용성교사의 연보와 사람다운사람을 찾습니다의 이 호소를 들으시고 분연히나서 주시기를 간절 간절히 바라고 바라는 바입니다.

또는 이러한 사람다운 사람, 훌륭한 학자님을 보신 분이 계시면 주저하지 마시고 천거해 주시면 아래와 같은 논제(論題)를 드려서 논거, 전 인류, 만 중생을 향토하는 밝은 등불로 모실 것을 간절 간절히 서원하고, 거듭 거듭 호소하고 호소하는 바입니다

논 제 (論題)

1. 석가여래불타님의 인행(因行)과 용성진종교사의 인행(因行).
2. 석가여래불타님의 최후 인행인 도솔천 내원궁 호명보살. 용성진종교사의 최후 인행인 석가여래부촉법 제67세 환성지안 조사.
3. 석가여래불타님의 룸비니동산 탄생과 용성진종교사의 죽림마을 탄생.
4. 석가여래불타님의 카피라성 성장과정과 용성진종교사의 죽림마을 성장 과정.
5. 석가여래불타님의 사문유관(四門遊觀)과 용성진종교사의 몽중수기(夢中授記).
6. 석가여래불타님의 유성출가와 용성진종교사의 덕밀암 출가.
7. 석가여래불타님이 육사외도의 가르침을 받음과 용성진종교사님이 해월화상의 가르침을 받음.
8. 석가여래불타님이 가야산의 수행과 전전각간의 사유와 우르벨라이촌으로 하산하심과 용성진종교사님이 가야산의 수계와 등운산의 주력하심과 금강산의 참선수행.
9. 석가여래불타님이 보리수하 금강보좌위에서 사마(四魔)를 항복받고 보리도(菩提道)를 이루심과 용성진종교사님이 도솔암에서 견도(見道)와 수도(修道)를 마치고 신라불교초전법륜성지 아도모례원에서 보리도를 증오한 오도(悟道)를 하심.
10. 석가여래불타님의 3·7 일 동안 해인삼매의 자수용 법략과 용성진종 교사의 3·7 일 동안 보림정진 환희음악.
11. 석가여래불타님의 녹야원 초전법륜과 용성진종교사의 금오산 정진수행.
12. 석가여래불타님이 연기 화엄부, 소송 아함부, 대승 방등부, 공혜 반야부, 실상 법화부, 원적 열반부를 설하시고, 용성 진종교사님이 불사수행, 주력수행, 참선수행, 간경수행, 염불수행을 제창.
13. 석가여래불타님께서 불타원류를 설해 주시고, 마하가섭존자에게 전법하시어, 조사원류를 이루게 하시니, 그러기에 용성진종교사님께서 불타교사원류를 확립, 전법의 밝은 길을 여셨음.
14. 석가여래불타님이 카피라성 백성을 구하고저 앞이 다 떨어진 마른 나무 밑에 앉으셨고, 용성진종교사님이 우리나라국민을 구하고저 기미년 3·1 독립운동 마취기등 되심.
15. 석가여래불타님께서 보리수 아래의 금강보좌를 여지지 않고 7처9회를 연기대방광불화엄경을 이설하시고, 용성진종교사님께서는 연기대방광불화엄경을 번역하고, 발간 유포 하심.
16. 석가여래불타님께서 왕사성 영축산에서 실상묘법연화경을 강설하시고, 용성진종교사님께서는 실상묘법연화경을 번역하고 발간, 유포 하심.
17. 석가여래불타님이 기원정사에서 공혜(空慧)금강마하반야비라밀경을 강설하시고, 용성진종교사님이 공혜(空慧)금강마하반야비라밀경을 상역과해 하여 발간, 유포 하심.
18. 석가여래불타님이 방등 대방광원각경을 강설하시고 용성진종교사님이 방등 대방광원각경을 상역과해 하여 발간, 유포 하심.
19. 석가여래불타님이 도리천상에서 어머니를 위한 설법으로 지장보살본원경을 강설하시고, 용성진종교사님이 위모설법(爲母說法)인 지장보살본원경을 번역하여 발간, 유포 하심.
20. 석가여래불타님이 대불정여래밀인수증요의 제보살만행 수능엄경을 강설 하시고, 용성진종교사님은 대불정여래밀인수증요의 제보살만행 수능엄경을 번역하여 간행, 유포하심.
21. 석가여래불타님이 정토삼부경을 강설하시고, 용성진종교사님이 정토삼부경을 번역하심.
22. 석가여래불타님이 공삼매, 무상삼매, 무상삼매, 무상삼매인 금강삼매경을 강설하시고, 용성진종교사님이 공삼매, 무상삼매, 무상삼매인 금강삼매경을 번역하심.
23. 석가여래불타님이 팔상성도 하시고, 용성진종교사님은 팔상록을 편집하심.
24. 석가여래불타님께서 8만4천 무진법문을 설하시고, 용성진종교사님께서는 고려대장경 판식, 보수 불사를 하심.
25. 석가여래불타님께서 그 조상의 원류인 포오탈라카의 일종씨(日種氏)임을 밝히고, 용성진종교사님께서 그 조상의 원류인 증원 신정 시조산의 현원씨(軒輦氏)임을 밝힘.
26. 석가여래불타님께서 법계(法界)의 성품(性品)을 관(觀)하고 일체유심조(一切唯心造)를 밝히고 용성진종교사님께서 천하의 모든 종교를 사성(四聖) 육법(六法), 십법계(十法界)로 회통 일체유심조를 밝힘.
27. 석가여래불타님이 죽림정사와 기원정사를 이룩하듯, 용성진종교사님은 대성초당과 대각사를 이룩하심.
28. 석가여래불타님은 말먹이 보리를 드시는 수난을 겪으시고, 공자님은 상가집 개새끼의 수난과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고난 당하시고, 용성진종교사님은 독립동지의 배반과 삼자 제자의 배신과 국민이 창씨개명으로 돌아가는 수난을 당하심.
29. 석가여래불타님의 성상(聖像)을 우전국 대왕이 전단향나무로 조성하니 불세존님이 그 등상불을 보시고

- 회룡하듯, 용성진종교사의 진영(眞影)을 동호거사가 탕화로 조성하니 용성교사님이 그 진영을 보시고 회룡하심.
30. 석가여래 불타님이 석란도(錫蘭島) 능가산(楞伽山)에서 능가경을 설하시고, 용성진종교사님이 백운산 화과원과 중국 복간도 연길 용정에 대각사 포교원과 선농당을 이룩하여 선농병행(禪農並行)을 제창 하심.
31. 석가여래불타님이 세계국도의 조직, 기원, 성립, 파괴 등의 연유와 세계창조론의 그 과정을 말씀하신 기세인본경(起世因本經)을 설하시고, 용성진종교사님은 이 우주간에 있는 삼라만상의 만유, 곧 부처님, 하느님, 사람, 지옥 등 모든 존재, 이 십법계(十法界)는 마음으로 지은 바 이기에 심조만유론(心造萬有論)을 지어 발간, 유포 하심.
32. 석가여래불타님이 인행시에 막내 왕자로써 주린 어미 호랑이에게 몸을 보시하니, 그 부왕이 애절하게 그 사리를 봉안, 그 국토를 장엄하였고, 용성진종교사님이 불타불적성지 가구기의 호법대왕이신 스리랑카 출신 인도 고승인 담파피라대사와 일본 고승인 후지(富士)대사로부터 불사리(佛舍利)를 받으심.
33. 석가여래불타님이 입멸하시어 대비 하시니 그 불사리(佛舍利)가 8각4두(八斛四斗)가 나오며 인천 복전(天福田)이 되시고, 용성진종교사님이 생시에 간경차 치아사리(一顆)가 나오시고 입멸하시어 대비 하시니 그 승사리(僧舍利)가 나오시다.
34. 석가여래불타님이 20여년간 기원정사에 주석하시어 4부대중 7중불자를 수도, 교화, 발원, 참회로 인도 하는 모범을 보이셨고, 용성진종교사님이 도봉산 망월사에서 석가, 관음, 지장, 삼존성상을 모시고, 만 일침선결사 도량(萬日參禪結社道場)을 열으시고, 장차는 신라고도 남산인 금오산중 고위산 천룡사 석가 만일 만인 동참, 참선, 염불, 간경, 주력, 불사, 불교5대 수행의 문호를 열어 호국호법의 언덕으로 삼으라 유훈하심.
35. 석가여래불타님이 바라나시 녹야원에서 아사 비구의 아버지에게 불, 법, 승 3보귀의계, 5계수계를 최초로 하시어 유연국도 중생에게 이어졌고, 용성진종교사님이 서울 서초동 우면산 대성초당(大聖草堂)에서 군수를 지낸 강영균(康永均) 거사에게 3보귀의계, 5계수계를 최초로 하시고 30여년간 3만여명에게 수계 하여 마치고 임종에 다달아 유훈하시기를 백만명이 넘도록 수계하라 부촉하심.
36. 석가여래불타님이 빈바사라 부왕을 죽이고 위대회 모후를 옥에 가둔 패륜 아사세 대왕을 교화하여 호법의 대왕으로 만드셨고, 용성진종교사님이 조선총독부 총독에게 범계생활 금지(犯戒生活禁止)에 대한 제1차, 제2차 지계간백서(持戒建白書)를 제출하여 교화하심.
37. 석가여래불타님이 쉰나비구의 목숨을 건 불퇴전의 신심과 확고부동한 원력을 증명하시고, 오랑캐 남방 교화에 문호를 열어 주셨으며, 용성진종교사님이 매한 윤봉길 의사의 목숨을 건 구국일념을 보시고, 상해임시정부 김 구 선생에게 보내어 구국의 문호를 일으키시다.
38. 석가여래불타님은 임종에 다달았을 때 아라한, 비구, 비구니, 국왕대신, 장자, 거사, 학자, 선남자, 선여인, 4부대중, 7중불자의 존중을 받고, 용성진종교사님은 임종에 다달았을 때 제자와 삼자가 배신하고 비구, 비구니는 비방하며, 독립동지가 배반하고 국민대다수는 창씨개명(創氏改名)으로 머리를 돌리는 박대를 받음.
39. 석가여래 불타님께서 입멸(入滅) 하시면서 이렇게 유교(遺教) 하셨습니다. 다문제일 아난다 존자가 물기를 부처님이시여, 저희들은 늘 부처님께 의지하고, 부처님을 생각하면서, 부처님을 스승님으로 모시고 살아 왔습니다. 부처님께서 입멸하시면 어디에 의지하고, 무엇을 생각하며, 누구를 스승님으로 모시고 살아 가오리까. 부처님께서 응대하시되, 4념처(四念處)에 의지하고, 부처님이 탄생(誕生)한 룸비니원과 부처님이 성도(成道)한 보리수원과 부처님이 최초로 설법(初傳法輪)한 녹야원과 부처님이 입멸(入滅)할 사리수원을 잘 가꾸고 꽃이라도 한 줌 흠으면서 부처님의 열반을 그리워하라. 그리하면 너희들도 장차 열반의 즐거움을 얻으리라 유교하셨고, 용성진종교사님은 유한 10사목을 부촉하셨습니다. 용성교사의 연보에 자세한 기록이 있으므로 생략함.
40. 불타 탄생성지 네팔 룸비니원과 가야불교초전법륜성지 창원 봉림산 봉림사에 대하여
41. 불타 성도성지 인도 보드기야 보리수원과 고려불교초전법륜성지 중국 집안 성문사 이불란사에 대하여
42. 불타초전법륜성지 인도 바라나시 녹야원과 서울 서초동 백제불교초전법륜성지 우면산 대성사에 대하여
43. 불타 장구주석성지 인도 쉬라바스티 기원정사와 구미 선산 신라불교초전법륜성지 아도모례원에 대하여
44. 불타 입멸성지 인도 구사나기리 사리쌍수원과 호국호법도량인 경주 남산 금오산중 고위산 천룡사에 대하여

그 외 33가지 논제목이 있습니다만, 지면 관계로 실지 못하였습니다.

■ 이러한 까닭으로 아래와 같은 사람을 구합니다.

- ①공양주(女) ②채공(女) ③사무장 겸 서사(女) ④사무장 겸 수행비서(女) ⑤사무장 겸 중국어통역관(女) ⑥사무장 겸 영어통역관(女) ⑦사무장 겸 일어통역관(女) ⑧사무장 겸 관리장(女) ⑨순수 관리장(女) ⑩순수 사무장(女)

- 근무처 : 1. 세계불교성지보존회 네팔 근무, 인도 근무, 중국 근무 2. 재단법인 대각회 3. 서울 종로 대각사 4. 서울 서초동 우면산 대성사지 5. 경주 금오산중 고위산 천룡사지 6. 경주 천룡사 부산 포교원 7. 구미(선산) 아도모례원지 8. 창원 봉림사지 9. 백용성조사 생가복원 성역화사업 정수 죽림정사 대응보전 창건 현장.

■ 직통 연락처

- | | |
|--------------------------|--------------|
| 경주 천룡사지 원감 | 011-558-8815 |
| 서울 대성사지 정광 | 011-714-1476 |
| 백용성조사유훈실현후원회 회장 | 011-345-2509 |
| 경주 천룡사지 대화주 | 051-245-3405 |
| 경주 천룡사지 백용성조사유훈실현후원회 부회장 | 016-558-3138 |
| 천룡사 부산포교원 신도회 회장 | 019-567-4691 |

만해 기념관의 관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공무원의 생리는 안되는 쪽도 알고, 되는 쪽도 알고 있는데 그 생각이 협조하느냐, 안하느냐에 따라 되기도 하고 안되기도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공무원 등이 민족사관이 정립이 되어서 환희음악하여 되는 쪽으로 생각의 물결구부를 틀 수 있기를 바라며, 이 불사를 계기로 하여 전 공무원 등이 민족중흥의 횃불이 되어서 안되는 쪽의 관념을 훨훨히 벗어버리고 되는 쪽으로 관념을 돌리어 온 겨레가 되는 쪽 한물결로 도도히 흘러가기를 바라며 이에 뒷받침 할 수 있는 능력있고 활동력이 왕성한 사무장을 찾습니다.

이 일에 함께 종사할 분들에게 다시 부탁드립니다. 하루 하루가 힘겹고, 고달프고, 어려움과, 알아주지 않는 생활은 복을 짓는 시간이요, 하루 하루가 힘이 덜 들고, 즐거움과, 쉽고, 알아주는 생활은 복을 받는 시간입니다. 복을 짓는 시간이 5분의 4의 생활이요, 복을 받는 시간은 5분의 1의 생활이니, 이 소식을 미리 아시고, 확고부동한 신심과 불퇴전의 원력으로 그 일에 즐거운 마음으로 일 할 수 있는 사람다운 사람을 만나기를 원하면서, 그 훌륭한 분을 구합니다. 국내·외적으로 백용성교사의 유훈실현을 위하여 헌신해서 촛불이 자기를 연소하여 빛을 발하듯이 향이 자기 몸을 태워서 향내를 풍기듯이 하는 분을 구합니다. 선세로부터 금세에 이어지는 불사수행에 이바지 하고자 하는 분은 학력은 상관없으니, 사진1매를 첨부한 자필 이력서 1통으로 신청하시고 대면 상담하여 결정하기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3동 산140번지 백제불교초전법륜성지 전통사찰 우면산 대성사
주지 범망 정윤성(대성사 부원분사 담당), 대성사 거사팀회 회장 원광 김용석(용성조사유훈실현 건축분야 담당), 대성사 신도회 회장 대광 유종혁(용성조사탄생성지 성역화사업 담당)
백용성조사 유훈실현후원회 회장 수승행 한영옥(중국, 네팔, 인도 성역화사업 담당 및 중국, 네팔, 인도 사무장 겸 통역관으로 오실 분과 사무장 관리장으로 오실 분 담당), 대성사 사무장 이은정, 대성사 사무장 이종은(사무장으로 오실 분 담당)
서울특별시 중로구 봉인동 2번지 대각사 사무장 민경재(사무장으로 오실 분 담당), 반야회 회장 원원화 김금화(신라불교초전법륜성지 모례장자 옛집 재현 불사 담당)
세계불교성지보존회 이사겸 네팔 카투만두 코넬로 사장 보광 정현일(불적 건축 담당), 룸비니 개발위원회 고문 겸 네팔 총 불교 신도회 회장 녹다 산(불탄성지 네팔 룸비니원 개발담당)
세계불교성지보존회 이사겸 부설 불타교사원류 연구원 용성조사편 연구위원겸 불타성지 네팔 룸비니원 대성석가사
주지 각현 법신(룸비니원 대성 석가사에 오시는 성지순례자를 대하여 학자 논문 담당), 용성사상 기념관 건립 추진 가야산 해인사 전 주지 봉주, 가야산 해인사 주지 보광, 가야산 해인사 한주 만운
세계불교 성지보존회 부설 불타교사원류 연구원 용성조사편/연구고문 광복희 전 사무총장 유홍수(학자 논문 담당)/연구고문 부산 사하구 국민회의 지구당 고문 전태수(운영담당)/연구위원 한국불교통신대학 학장 전용만(학자 논문 담당)/부산지사 한국부인회 사회지회 회장 박이자(운영담당)/서울간사 도서출판 "우리아이들" 전 대표이사 여병희 김 선미(학자 논문 담당)
경주 남산인 금오산중 고위산 천룡사 원감 금강일 강순자(운영담당) 화주 무량각 강금연(운영담당), 천룡사 백용성조사 유훈실현후원회 부회장 관음주 김희재(운영담당), 총무 범양자 정미자(운영담당), 경주 천룡사 부산포교원 신도회 회장 정혜일 백옥순(운영담당)